

〈과기토론회 주제발표 1〉

“차세대 성장동력사업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터”

발표_임상규 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과학기술혁신정책은 혁신주도형 경제구조를 확립하고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펼쳐진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그 중심에서 기술개발, 성과확산, 재투자로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정착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다.

우선 국가발전을 위한 중장기 과학기술혁신정책 및 국가 R&D사업 관련계획은 범부처적으로 수립, 조정하게 된다. 지금까지 비체계적으로 이뤄졌던 정책들을 통합해 혁신본부에서 운용하게 되며, 이를 통해 국가의 전체목표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국가R&D사업의 종합조정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가차원에서 수요지향적이며 체계적인 중장기 R&D 투자전략이 미흡했다. 때문에 부처간 공동추진, 상호연계 등이 필요한 사업에도 부처별로 중복 투자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었다. 앞으로는 국가차원에서 중·장기 R&D 투자전략계획을 수립해 과학기술, 산업발전의 추세와 산업계의 기술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중점 투자방향을 설정해 나갈 것이다.

또한 산업별-기술분야별-지역별 연구회나 포럼, 학회 등을 활성화해 연구중간조직이 산업계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

를 효율적인 투자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범부처 차원에서 R&D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처공동기획단, 부처공동평가단을 구성, 운영할 것이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효율적인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해 정부는 초기시장 진출과 R&D 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규제완화, 인력양성 등의 지원을 하고, 민간이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 대해 집중투자해 핵심기술의 실용화와 초기시장 선점에 주력하도록 지원하겠다.

이공계 기피 현상은 우리 사회의 큰 딜레마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이공계 인력의 양적인 확충에 주력한 것이 지금까지의 지원대책이라면 앞으로는 분야별, 수준별 이공계 인력양성을 위해 각 부처별 과학기술인력 양성시책을 조정하고 국가과위와 인적자원개발회기간 협조체제를 구축해 이공계 인력의 질적 양성에 힘쓸 것이다.

국가 R&D사업성과를 상용화하기 위해 기술개발부터 상용화 추가개발, 시범사업, 수출산업화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것이다.

R&D 관련 사업·기관 등의 관리·평가 중점을 성과중심으로 전환하고 연구개발성과평가법(가칭)을 제정해 성과중심의 R&D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다.

이와 함께 NIS(국가기술혁신체계)-RIS(지역기술혁신체계)간 연계, 조정체제에 따라 기술혁신의 고도화와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을 견인해 나갈 방침이다.

과학기술인 현장

과학기술은 인류 공동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며 합리성과 보편성을 바탕으로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식체계이다. 이에 우리 과학기술인은 무한한 탐구심과 창의력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밝은 미래사회를 여는 주체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지닌다.

1. 우리는 과학지식을 증진시키고 기술혁신을 추구하여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
1. 우리는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자연 환경을 만든다.